



## 추위 타는 후에 든든한 옷을

## “내 차 후륜구동 맞아?”

체인 사용 방법 달라 달기 전 꼭 확인해야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타이어나 스노체인 등 주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는 구동방식에 따라 타이어와 체인의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의 구동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륜구동차는 후륜구동에 비해 눈길 주행력이 좋다. 국산 세단 대부분은 전륜방식이다. 전륜방식은 앞바퀴가 구동력을 가지면서 방향까지 바꾸기 때문에 앞바퀴에 마찰력이 걸려있으면 주행이 가능하다.

스노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에 달지만, 체인을 감을 때는 구동력이 있는 앞바퀴에만 감아야 한다. 스노타이어가 2개 밖에 없을 때는 앞바퀴를 바꿔야 한다.

후륜구동차는 겨울철 주행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미끄러운 언덕길을 올라갈 때 구동력을 가진 뒷바퀴는 헛돌기만 하고, 방향을 바꾸는 앞바퀴는 구동력이 없어 차를 끌어올리지 못한다.

아우디·폭스바겐·푸조·볼보·사브를 제외한 유럽 고급 세단 대부분이 후륜구동이다.

국산차 중에는 현대차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쌍용차 ‘체어맨’, GM대우 ‘베리타스’가 해당된다.

차가 후륜방식이라면 미끄러운 길에선 과격한 주행을 삼가는 게 좋다. 물론 체인은 뒷바퀴에 감아야 한다.

4륜구동차는 전륜 및 후륜차에 비해 눈길에서 가장 안정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최근엔 SUV(스포츠퉄윙 리티 차량)는 물론, 세단에도 4륜구동 모델이 많다.

스노타이어는 네 바퀴에 모두 달고, 체인은 4륜구동의 기본 구동축이 전륜 쪽이면 앞에, 후륜 쪽이면 뒤에 달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겨울철을 맞아 차량용 ‘월동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의 수명은 겨울철 관리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차량을 점검한 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아야 겨울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낮고 도로가 얼기 쉬운 겨울에는 사소한 고장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손쉽고 저렴하게 건강과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자동차 월동 정비도 인기를 얻고 있다.

### 각종 오일 ‘체크’ 필수...부동액도 미리 준비

따라서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동결되지 않도록 부동액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겨울에는 부동액과 물을 50대 50 비율로 맞추는 게 좋다.

부동액 점검 방법은 엔진이 차가울 때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 냉각수 색깔로 관찰한다. 부동액 원액의 색깔인 녹색이 농도가 옅거나 붉게 변색이 될 경우 새 부동액으로 교환해야 한다.

또 겨울철에는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의 교환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오일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홀하기 쉬운 워셔액은 4계절용을 이용해야 워셔액 탱크가 동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면 배터리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 배터리는 기온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급격한 방전으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겨울에는 또 배터리와 연결되는 발전기와 각종 배선도 함께 점검해 전기계통의 자동 불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겨울에는 차량의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해 자동차 유리에 김서림이 자주 발생한다. 김서림 방지제를 미리 발라 두거나 공기를 외부로 빼내고 히터를 틀어놓으면 김서림을 줄일 수 있다.

◇필터 교환, 타이어 점검=겨울철에는 히터를 갑자기 틀 경우 곰팡이와 먼지 냄새로 고역을 겪기 쉽다.

이는 차량의 실내 필터가 오염됐기 때문이다. 각종 피부·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필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차 내부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겨울철 김서림 제거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필터 점검 및 교환이 필수다.

차량의 내부 필터는 대부분 글로브 박스 내부에 장착돼 있어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고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타이어를 점검하고 스노 체인을 준비하는 등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한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눈·비에 큰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

타이어는 옆면에 있는 마모 한계 위치 표시를 살펴보고, 타이어 트레드(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에 남은 홈 깊이가 1.6mm 이하일 때는 교체해야 한다.

스노체인은 사슬형과 우레탄, 직물형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므로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한 제품으로 구비하면 된다.

사슬형 체인은 값이 싸고 성능이 좋지만, 여성 운전자나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장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승차감도 떨어진다.

스노 체인 탈부착이 번거롭다면 스프레이 체인을 타이어에 끌고루 뿌려 주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도 1만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겨울에는 사소한 고장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을 점검한 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광역시) 1082-227-9940 총장점 (부산광역시) 1062-227-9970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25화 박현빈** **27특28금 김수희** **4특5금 설운도**

**호박 나이트** **OPEN** 광주첨단·폭스존영